

예수 부활, 우리의 소망!

4월 17일 부활주일 ... 칸타타, 차세대 부활절 행사 개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 에서 예수님의 길 묵상

4월 17일은 부활주일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다. 이 기쁘고 뜻깊은 날 온누리교회는 부활주일 칸타타와 차세대 부활절 행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부활절 칸타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일 1~2부 버금미션과이어 '도마의 고백', 일요일 1~4부 온누리위십과이어 '예수 그리스도(요 3:16)'를 주제로 선보인다. 양재온누리교회는 일요일예배 1~4부에서 뮤지컬찬양팀이 '예수의 부활'을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한다. 동빙고근린공원에서 '부활절 가정 신앙 양육 문화활동 물품'(기도문적인 각티슈, 말씀암송퍼즐)을 나눠준다. 예수님의꿈아이(예꿈)에서는 부활절 드라마 설교(영아부)와 소그룹 활동으로 달걀 꾸미기(유치부)를 한다.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확증한 하나님의 참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깊이 묵상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큐티지 <생명의 삶>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4월 11일(월)에는 '십자가 죽음에 담긴 풍성한 구원 열매'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과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축복을 깊이 누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4월 12일(화)에는 '배신자의 발까지 씻기신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난 4월 15일(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주찬양사역팀이 특송을 하고 있다.

향한 절음과 섬김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섬김으로 십자가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 13일(수)에는 '하나님 권하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들'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메시지는 "갈 맞은 양심, 비겁한 양심을 따르는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양심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4일(목)에는 '십자가에서 선포된 유대인의 왕'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메시지는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조롱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4월 15일(금)에는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주제로 성금요일 메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한다"라고 선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5월 2일 온라인 유튜브 채널

최현명 자매(SNS청년부)는 지난해 온라인 행복드림 콘서트를 잊지 못한다. 온라인 행복드림 콘서트에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최현명 자매처럼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다.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는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윤희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 (이하 행복드림 콘서트)가 열린다. 5월 2일(월)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이 업로드된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하고 싶은 성도들은 4월 20일(수)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5월 2일 이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부모님과 함께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2', 02-3215-3214

피(血)로 나누는 부활의 기쁨!

생명나눔의 기적 6월 5일까지 연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헌혈로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6월 5일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인해 더 커진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내린 조치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기사 6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 헌금 유의사항

■ 온라인 헌금(계좌 송금)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이름만 입력하면 다수의 동명이인으로 인해 정확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달려라 풍당' 참가자 모집 4월 18일부터 '체리' 앱에서

4월 18일부터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허입과 제작, 주일 학교 예배 지원을 위한 후원 캠페인 '달려라 풍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달려라 풍당'은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자전거, 걷기, 달리기 등 운동한 만큼 기독교 OTT '풍당'을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월)부터 '체리' 앱에서 하면 된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플랫폼 '체리' 앱에서 접수부터 운동별 기록 측정, 랭킹 확인, 인증샷 공유까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창조절서 회복 위한 실천은 계속된다!

사순절 창조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료

사순절 창조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종료됐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일상에서 창조절서 회복을 위한 실천을 계속 이어간다.

사순절 창조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제안했던 '사용하지 않는 가전 콘센트 뽑기',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역 농산물 구매하기', '씻을 때 물 아끼기', '이면지 활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등 21가지 실천방법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했다. 나만의 창조절서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대시킨다.

독고석 집사(서초C공동체)는 "절수 변기와 수도꼭지를, 이자영 성도(강남E공동체)는 "카페에서 머그컵, 텀블러, 리유저블 컵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관련기사 5면)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는 "사순절 창조절서 회복캠페인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21가지 실천 사항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지난 2월 24일 새벽 5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하여 우리 국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이 전쟁은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8년 전에 시작한 것이라는 점이다. 2014년 러시아는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크림 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 국민이 친러시아적인 정치를 따르기를 꺼리는 것에 대응하여 돈바스 지역(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불법적으로 러시아 군대를 보내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공화국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로 부터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한다”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침공을 변명했는데, 이번에 일으킨 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구출 작전’이라며 NATO 기지와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러시아 국민에게는 우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신나치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러시아 시민들이 그 말을 믿고 이 전쟁을 시작한 폭군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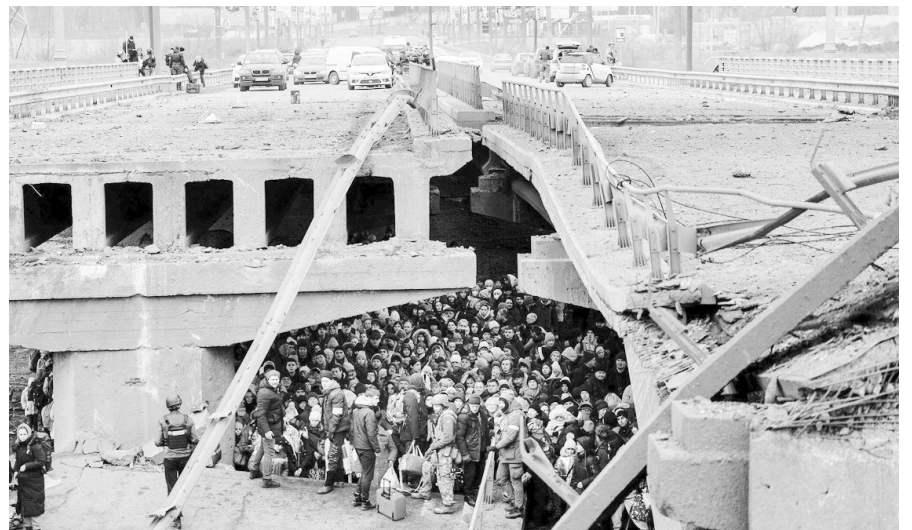
매일 뉴스를 통해 러시아군대가 우리 땅에 가져온 공포를 볼 수 있다. 키이우, 하르키우, 미콜라이우, 보즈네센스크, 체르니히우, 헤르손, 고스토멜, 수미, 옥티르카 등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많은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지금 폐허로 변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시민들은 이제는 방공호에 몸을 숨기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마리우폴은 봉쇄 상태에 빠져있다. 러시

아군이 인도주의적 피난길을 막고 있어 민간인의 대피가 막힌 상황이다. 그리고 며칠 전 마리우폴 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폭격 사건을 통해 러시아가 주장한 ‘우크라이나 구출 작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왔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왔다.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생명 바쳐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국민 남녀 모두가 자원입대하여 가장 치열한 곳에서 싸우며 목숨 바쳐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고 있다.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 필자의 오빠를 비롯해 친척들 모두 자원입대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필자의 친한 친구는 전쟁에서 숨졌다. 친척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조국의 국민 모두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꼭 반드시 이길 것이다. 진실은 우리편이기 때문이다. 지금 점령지에서 총살 위험 속에서도 우리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위험 속에서도 거리에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 국외 거주자들도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을 조직하여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필자 또한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러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진실을 전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중이다. 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민주



적인 나라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참혹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 국민의 도움과 성원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제발 침묵하지 말아달

라. 세계가 침묵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잔혹 행위와 폭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진실을 알리는 우리의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나라이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 카테리나(우크라이나인, 경희대학원 국제관계학 전공)

왜 이리 급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를 떠나게 하셨을까?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현지의 사역자와 제자들만 남겨둔 상황에서 왜 이리 급하게 모든 나라의 사역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만 했을까?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다. 일본총독부는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참배 거부사건을 계기로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폐교하게 만드는 강경책을 썼다. 그러자 기독교계 안에서 의견이 분열되었고, 1937년부터 기독교계 학교의 일부는 폐교하고 일부는 순응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 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의 신사참배 문제가 일제의 의도대로 일단락되어가자 일반인들은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본 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

도 대책’을 세워 일반 신도들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38년 신사참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 이때 선교사들은 무슨 마음으로 한국 땅을 떠났을까? 한국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기독교 역사가 끊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은 조선땅을 떠나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그 시점부터 한국 교회는 각성했다. 제자들은 스스로 일어섰고, 교회는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국가다.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 후 30년의

역사 동안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필자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현지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였다.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나라를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전세기를 타고 나라를 떠나갔다. 하지만 남아있는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안정되면 새로운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믿음의 눈물로 씨앗이 자라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이다. 더불어 사역지를 두고 떠나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선교사와 한국으로 나와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이들은 생활 터전에 모든 것을 두고 간단히 옷가지만 챙기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지원과 후원도 끊어진 선교사들이 많다. 현지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인

사역자들에게 임금, 사역비, 월세 등을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건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밀려오는 이자와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있고, 음식을 구입해 우크라이나 내로 보내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 많은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전쟁을 두려워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거리로 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광순 선교사(계신)

* 이 글들은 지난 3월 21일 한국선교KMQ에서 발행한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책자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통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우크라이나대사관)
기아대책: 02-544-9544
대한적십자사: 1577-8179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흠여질 수밖에 없었고, 흠여짐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이들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참된 믿음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7~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래 참을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교훈입니다. 13~20절까지는 “기도하라”는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에 관한 교훈이 거의 동일한 횟수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약 5:6).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의한 방식 그대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군가 너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한 번의 연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여러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졌습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교훈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교훈을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와 예수님의 재림

악한 이들의 핍박과 시험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7절).

인내를 연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만 참고 삭이는 것을 인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는 긍정적인 인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인내가 아니라 농부가 열매를 낫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좋은 날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립니다. 열매를 구체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고난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예언자들도 할 말은 했습니다. 인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울바른 목소리는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식, 악한 방식, 거짓된 방식, 폭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열매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열매를 거두는 추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과 농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추수는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거두지만 열매가 아닌 것은 버려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십니다”(8~9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왜 번거롭게 두 번이나 오시는 것일까요? 왜 초림과 재림이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고후 6:2라는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받을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정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맞이하던 거절하던 임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임박했고 지금도 임박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이뤄지지 않았으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2천 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한 점의 순간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이 시대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엎는 재앙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역사에 주시는 메시지는 임박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증상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에 대해 말씀하시고, 전염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빈도와 강도가 느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계속 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간들이 자초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극도의 이기주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랑,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말세의 증상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가까

이 왔을 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임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인내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욥의 인내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농부는 열매라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원인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끝을 모르는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험이었고, 공격이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세 단계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소유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어 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욥 1:20~22).

욥은 놀라운 믿음으로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고난에서 욥의 아내가 무너집니다. 욥의 아내가 “이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킨단 말이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의 믿음이 무너졌고, 인내가 무너졌습니다. 욥은 아내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욥 2:10).

놀라운 욥의 인내입니다. 아내가 무너진 상황에서 욥은 입술을 굳게 닫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은 그 상황이 끝을 모르며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14면에 계속)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용기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

부모의 인정과 사과!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

인간은 누구나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존재의 무시는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친다. 때로는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지 않고, 아예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섯 살짜리 아들이 식탁 앞에 앉다가 우유 컵을 건드리는 바람에 우유를 었질렀다. 그러자 아빠가 “야! 너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왜 그렇게 덜렁거려?”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아빠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아빠가 우유 컵을 팔꿈치로 치는 바람에 우유컵이 넘어졌다. 식탁 앞에 앉은 가족들이 아빠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때 아빠가 화를 내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우유 컵을 여기다 갖다 놓았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늘 남의 탓을 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다. 그 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다. 아빠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아이들은 용기 있는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정말 사과해야 할 때가 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싸웠을 때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싸워서 안 된다. 아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부모가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뿌리다.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은 뿌리가 흔들리

는 것을 경험하고,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겪는 공포감을 느낀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이 싸움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뭘하고 있어? 어서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마음이 온통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깊은 좌절감, 모멸감, 분노를 느끼고 깊은 상처를 경험한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기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어른들이 싸우고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아이들이 싸우면 사과하도록 강요하고 화해를 시키는데, 자신들이 싸우면 아이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싸웠을 때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자녀들 앞

서 부모가 싸우는 것은 자녀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왜 다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

명해줘야 한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자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을 꼭 이야기해줘야 한다. 자녀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 주고, 부모가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은 용기 있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완벽한 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야단치고 다른 사람 탓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다. 겉으로는 권위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권위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부모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권위를 세우는 부모 되기를 축복한다.

“아이들은 용기 있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우리들 작품

말씀 먹고 마시는 차세대의 ‘사순절 성경쓰기’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함께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써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에요. 빵이랑 물고기가 몇 개 없었는데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너

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싫고 놀고만 싶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밤에 잘 준비하고 양치하는 것도 너무 귀찮았는데 지금은 싫어하던 일들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 이야기를 할머니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친구들이랑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 김주원 학생(서빙고 꿈땅)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사순절 성경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쓰면 쓸수록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뭐가 드렸다는 마음이 들어서 좋아요.

오병이어 사건과 향유옥합 사건을 쓸 때 제일 재미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법같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많이 만드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사랑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가 ‘하나님은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속상했어요.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 이사인 학생(서빙고 꿈땅)

성경 QUIZ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보아요.

1.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고 15:4). 사흘은 며칠을 뜻하는 말일까요?

① 4일 ② 3일 ③ 5일 ④ 2일 ⑤ 7일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요 20:18)

① 베드로 ② 요한 ③ 천사 ④ 막달라 마리아 ⑤ 성령님

3.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1) “너희에게 ()이 있을지어다!”(요 20:19)

2) “()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하면 그 죄는 사람을 받을 것이요, ()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요 20:23)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9. 생명의 계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

절수 변기와 수도꼭지, 텀블러와 리유저블컵 사용 제안

이제는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이뤄나간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막을 내린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갔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끝나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실천은 계속된다. 새로 생긴 작은 습관들을 멈추지 않고 일상에서 계속 이어나간다. 독고석 집사(서초C공동체)는 ‘절수 변기와 절수 수도꼭지 사용’을, 이자영 성도(강남E공동체)는 ‘카페에서 텀블러, 리유저블컵 사용하기’를 제안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텀블러 사용하기, 제철 음식 먹기, 자전거 이용하기.

지난 3월부터 달라진 게 있다. 변기마다 물을 사용하는 용량이 다른데 대부분 물 13L를 사용하는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제는 13L의 변기를 팔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대신 6L 이하 변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국대 토목환경과 교수 독고석 집사(서초C공동체)는 “절수 변기(6L 이하 변기)사용은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그 자체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좋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세탁, 주방, 화장실 등에서 물을 아끼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실천만 추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기를 바꾸거나 변기 사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독고석 집사의 제안처럼 일상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게 변기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 중에서 27%가 변기의 물을 내리는데 사용된다.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L의 물을 사용하는데 평균적인 배변 횟수(대변 1회 소변 7회)를 고려하면 1인당 하루에 50~100L 정도를 쉽게 사용한다. 13L 용량의 변기는 필요 이상의 물을 쓰고 있다. 6L의 수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변기 1회 사용할 때마다 물 7L 정도를 낭비하고 있는 셈

이다. 이를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15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55톤의 물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세가 저렴합니다. 물 1톤당 4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수도세 80%가 물을 퍼 올리는 에너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쓸수록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수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기가 많은 시설에서는 이미 절수 변기로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모든 변기를 절수 변기로 바꾸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럴 때는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 변기 물탱크에 넣으면 된다. 주방에 절수 수도꼭지를 설치해도 물 사용량 20%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카페 일회용품 규제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다.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도 금지된다. 대형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잔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리유저블컵’을 이용해야 한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R 카페’를 운영 중인 이자영 성도(강남E공동체)는 요즘 고민이 많다. 텀블러나 리유저블컵 사용이 늘어나야 친환경

적인 방법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손님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R카페 오픈을 준비할 때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리유저블컵을 도입했습니다. 손님들께 꾸준히 리유저블컵 사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쓰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텀블러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모를까 점심

식사 하러 나올 때 챙겨 나오는 게 꽤 불편한 것 같습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머그잔 진열하고 씻고, 텀블러 행거서 커피를 담아주는 것은 인건비가 든다. 거기다 지난 1년 동안 커피 원두 가격이 약 80% 상승했다. 부담을 안고 있는 카페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더해진 것이다. 이자영 성도는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라고 했다. “유명 커피브랜드에서는 이미 리유저블컵만 이용하는 매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브랜드를 향한 팬심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텀블러와 리유저블컵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동영상 공모전

온누리신문에서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성도들의 노력을 담은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4월 30일까지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동영상 공모전’을 태그해 업로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다. 문의: k4458@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 소감

‘인간’ - 어려운 이웃 격려 메시지 보내기: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셨군요.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시는 모습에 감명을 얻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언제든 기도제목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이강현 목사(양재A공동체)

평소에 음식할 때 냉장고에 미리 사서 저장해둔 식재료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봄이 되면서 제철을 만나 시장에 나온 나물들을 더 사용해서 반찬을 만들어 보

려고 했어요. 식탁이 더 풍성해지고 향긋한 느낌도 살아있네요. / 강인숙 권사(서초A공동체)

주제에 맞게 한 주 한 주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것들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민정 성도

오늘은 헬스장 직원분께 격려와 작은선물을 준비해드려서 이웃 격려와 배려를 실천해봅니다. / 이호진 성도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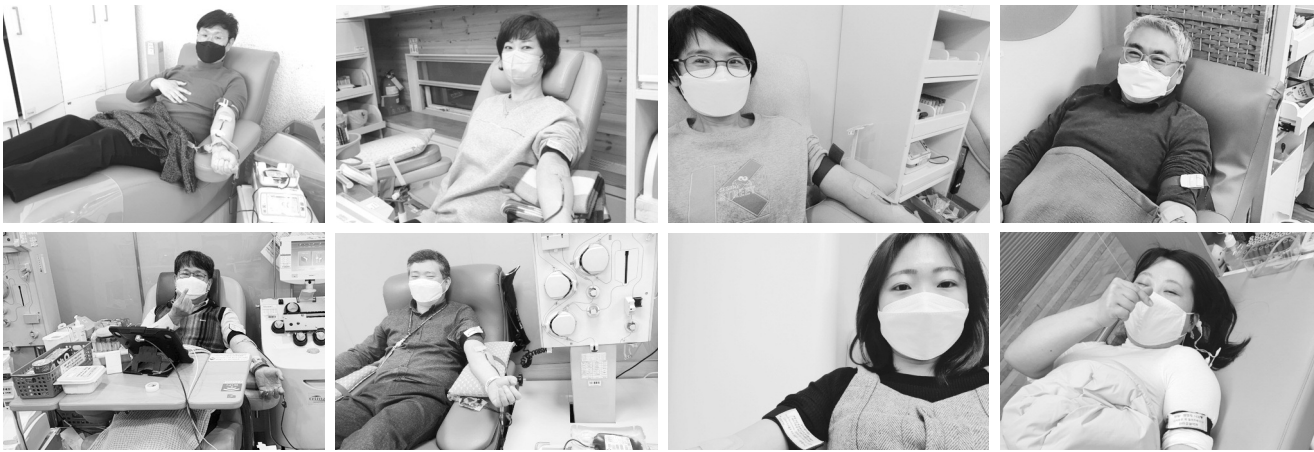
“헌혈,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선물합니다!”

114일, 3,521명, 40,960,262원.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지난해 성탄절부터 부활절인 4월 17일(주일)까지 맺은 열매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76개 교회와 단체에서 114일 동안 3,521명이 헌혈했다. 이웃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선물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도 4천9십6만2백6십2원이나 모금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혈액보유량이 100일 가까이 적정혈액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헌혈 참여 제한 규정 등의 영향으로 헌혈하는 사람이 더 줄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보유량이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일 평균 혈액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때 혈액을 전달할 수 없다. 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이 진행된 지난 114일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매일같이 헌혈했다. 온누리교회 성도 813명이 헌혈의 집, 헌혈카페, 헌혈 버스 등지에서 헌혈했다(4월 14일 기준).

정말 많은 성도가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한 만큼 헌혈하게 된 계기, 헌혈 참여 횟수, 헌혈 방법 등 저마다의 헌혈 이야기가 만들 어졌다. 헌혈 버스에서 첫 헌혈 한 성도, 가족이 수혈받았던 생명의 빛을 갖기 위해 헌혈을 한 성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용기 낸 성도, 부모님을 따라 생애 첫 헌혈 한 차세대 등 아름다운 고백이 풍성하다. 헌혈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 이든 헌혈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 좋은 일을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라는 고백과 앞으로도 계속 헌혈 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친인니와 함께 생애 첫 헌혈을 한 나고은 자매(부천드림플러스는) “헌혈의 좋은 점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꼭 함께하고 싶다”면서 ‘헌혈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년 만에 다시 헌혈하게 된 임근삼 성도(동대문중랑공동체)는 “10분이면 끝나는 헌혈을 이제까지 고민한 게 아쉽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도 헌혈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헌혈의 장점 한둘이 아니다

이제 막 헌혈을 시작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30회는 기본이고 50회, 100회, 200여 회를 훌쩍 넘긴 성도들도 많다. 헌혈의 어떤 점

이 그렇게 좋아서 계속 실천하는 걸까? 우선 헌혈하면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할 수 있다.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는 박상호 형제(허브대학부)는 “석 달에 한번 헌혈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을 헌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본을 보이는데 헌혈만큼 좋은 방법도 많지 않다. 칠순을 앞둔 나이에도 적십자 헌혈유공장(금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헌혈하는 정영철 순장(양천공동체)은 “헌혈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성도들에게 헌혈을 권유했다.

이웃과 생명을 나누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헌혈이 주는 큰 기쁨을 깨닫고 200번이 넘는 헌혈도 모자라 전국 팔도 헌혈 여행을 다니는 백성근 형제(두란노서점 직원)는 “헌혈로 이웃과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즐겁고 뿌듯하다”면서 “헌혈은 취미이자 기쁨”이라고 고백했다.

헌혈로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다희 헌혈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포상도 있다.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유공장을 전달한다. 헌혈 30회 하면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헌혈 종류와 방법도 다양하다

헌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전혈헌혈’과 성분채혈기를 이용해서 적

혈구, 혈소판, 혈장, 백혈구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채혈하고 나머지 혈액은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성분헌혈’이다.

전혈헌혈이 대표적인 헌혈이다.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나 수술할 때 사용된다. 전혈헌혈은 약 10~15분 정도 걸린다. 헌혈한 날부터 8주가 지나야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 1년에 5회까지 할 수 있다.

성분헌혈은 혈소판감소증 또는 혈소판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지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채혈하는 성분에 따라 혈소판성분헌혈, 혈장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세 가지로 나뉜다. 성분헌혈은 필요한 성분을 채집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재주입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해서 전혈헌혈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혈장성분헌혈은 약 30~40분, 혈소판성분헌혈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약 60~90분 채혈한다. 성분헌혈을 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다음 헌혈을 할 수 있다.

헌혈 대상을 미리 지정해 놓는 ‘지정헌혈’도 있다. 지정헌혈은 수술이나 함암치료 등 급하게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직접 혈액을 전하는 방법이다. 지정헌혈은 보통 혈액원이나 병원에서 보유한 혈액이 부족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혈액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지정헌혈 요청은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의미한다.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혈소판 지정헌혈을 요청했던 손수민, 박소희 성도네(양천공동체)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지정헌혈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골수이식 수술 전후로 지속적인 혈소판

수혈이 필요했는데 양천공동체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주시고 지정헌혈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3번씩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퇴원할 때까지 각기 다른 공동체 성도님들이 지정헌혈을 예약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특별한 생명나눔도 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환자와 기증자가 ‘조직적합성항원형’(HLA형, 백혈구 항원을 의미)이 같아야 한다. 기증받는 환자가 정해져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성분헌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성분채혈기를 이용해서 전혈을 채혈하고 조혈모세포를 채집한 다음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다만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기증 3~4일 전부터 ‘조혈모세포성장인자 피하주사’를 맞아야 한다. 안전한 채혈과 이식을 위해 2와 3일 입원해야 한다. 조혈모세포 채집은 입원 2일 차에 4~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병훈 성도(강동온누리교회)가 얼마 전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을 선물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와 생명을 나누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자 기적입니다. 더 많은 성도가 용기 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헌혈, 이렇게 하면 된다

헌혈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헌혈의 집, 헌혈카페, 헌혈 버스 등을 방문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전국 15개 혈액원에서 100여 개가 넘는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헌혈의 집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찾을 수 있다.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 헌혈 경력 조회, 헌혈 전 검사(혈압, 맥박, 체온 측정, 혈액형 검사, 혈액비중 검사, 혈소판 수 측정, 문진), 휴식 및 헌혈증서 수령’ 등의 순으로 헌혈을 한다. 성분헌혈, 지정헌혈 등은 방문한 헌혈의 집에 문의하면 된다.

헌혈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CRM센터로 전화(1600-3705)하면 안내해준다. CRM센터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 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전도콜센터

나 대신 전도해준다!

베테랑 사역자들이 찾아가 전도하는 ‘전도콜센터’

나 대신 전도해주는 사역팀이 있다. ‘전도콜센터’다. 전도콜센터는 전도해달라는 성도들의 요청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달려간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해서 한시라도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주저하게 될 때 전도콜센터에 연락하면 베테랑 전도사역자들이 어디든지 찾아가 대신 전도해준다. 영접기도, 병상 세례, 교회 인도, 노방전도, 관계전도, 전도사역자 훈련 등 전도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도전문사역팀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복순 권사(전도콜센터 관계전도부장)는 늘 전도할 준비를 한다. 언제 전도콜센터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시간도 비워둔다. 바로 전도하러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도콜센터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복음 전하려 가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웃음).”

장복순 권사는 병원에서 만난 전도대상자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86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 따님이 전도콜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면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그 어르신은 이미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분의 귀에 대고 복음을 속삭였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일주일 뒤에 깨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도콜센터팀이 다시 그분께 복음을 전하려고 병원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예수님 잘 믿다가 9개월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파킨슨병 환자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3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3일 전에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장복순 권사는 전도콜센터 사역을 하면서 보람과 함께 큰 위로도 경험하고 있다.

“전도콜센터에서 놀이터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파요.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엄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찬주 집사(전도콜센터 팀장)도 잊지 못할



전도콜센터 사역자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순간들이 많다. 이찬주 팀장은 2018년 일본 나가노 아웃리치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도콜센터에서 나가노중앙교회에서 전도학교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 20여 명이 오셔서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매일 아침 나가노공원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인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분께 주일예배에 나오라고 초청했는데 진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등록까지 하는 것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찬주 팀장은 병상 세례를 준 일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캐나다에 계신 성도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해서 한국에 왔는데 꼭 복음을 전하고 싶

다면서 전도콜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 전도콜센터팀이 가서 아버지께 복음 전하고 병상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영접기도와 병상 세례까지 받고 눈감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콜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찬주 팀장은 이 좋은 전도콜센터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전도콜센터가 정말 좋은 사역인데 성도님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힘들거나 긴급(응급) 상황 발생으로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도콜센터로 연락주십시오. 베테랑 전도사역자들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전도해드리겠습니다!”

문의: 02-3215-3214, 010-5310-5481

사역칼럼

걱정말고 전도콜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강창재 장로
(전도콜센터 담당)

온누리교회에는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역팀이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과정을 수료했다라도 전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직 전도 방법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더 많다.

온누리교회에는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 ‘전도콜센터’다. 전도콜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사역자들이 대신 찾아가서 관계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 사역이다. 전도콜센터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첫째, 직접 전도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전도콜센터에 요청하면 전도사역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호스피스, 병상 환자들이다. 전도 119인 셈이다.

둘째, 전도자 훈련 및 육성이다. 전도콜센터에는 전도사역자 76명이 동역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전도콜센터에서 10주 동안 시행하는 심화 과정을 수료했다. 노방전도나 관계전도 등의 실습도 함께 훈련했다. 전도콜센터에서는 전문전도훈련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전도사역자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셋째, 전도지원사역이다. 전도콜센터에서는 전도지, 전도용품, 전도영상 등을 개발 보급하고, 다른 사역팀(농어촌사역, 이주민사역, 공동체, 타 교회 등)과 협업하면서 전도사역자를 파송, 훈련,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나 대신 전도해주는 전도콜센터를 아

직 많은 성도가 잘 모르고 있다. 전도요청서(서빙고온누리교회 헌금봉투작성 테이블에 비치)를 작성하거나 공동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도콜센터 베테랑 전도사역자들이 어디든지 달려가 전도해준다. 전도콜센터에 연락하면 전도콜센터 사역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도와준다. 전도콜센터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한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팀과 연합해서 그들의 전도를 돕거나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의 기쁨을 안고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을 전도하려니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했다. 복음을 전하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가족이나 친구, 직원들을 전도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다. 2019년 21기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전도의 무기인 ‘5분 전도’를 알게 되었다. 전도 무기를 장

착한 나는 그 이듬해 전도사역자가 되어 전도콜센터에 합류했다.

많은 성도가 전도에 부담을 느낀다.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 그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당장은 거절했을지라도 언젠가는 받아들일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서는 안 된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가 자기 혼자 믿음을 간직한다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도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전도의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공교육에서 하는 성교육 실태와 문제점



이상준 장로
(강남D공동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지난 2월 시청 시간 Top Rank를 기록했다. 과학 교사가 좀비 바이러스를 실험하다가 학생에게 감염되고 학교와 도시로 바이러스가 퍼

져가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드라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새벽부터 흔들어 깨우고 소리쳐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학교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특히 수능 이외의 과목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처럼 어른들의 잘못된 신념과 행동이 만든 교육의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멀어지고 인본주의와 유물론의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다.

충격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2017년, 우리 부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그 충격적 사건으로 공교육 안에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순원 가정에서 겪은 일이다.

그 순원의 자녀(초등학교 저학년)가 수업시간에 남성혐오의 극단적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수업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 선생님은 수업 중에 당시 열리고 있었던 퀴어축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가르쳤다. 그 선생님의 책상은 관련 사진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 선생님의 교육에 여러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 교사는 학교 뒤에 숨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선생님을 감싸며 교육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항의한 학부모의 자녀들을 정죄했고, 결국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나는 성소수자의 인권은 소중하다고 가르치면서 힘없는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선생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 본인들의 주장과 신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는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을 반에서 소외시키는 행동은 우리가 믿었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 이 사건을 다루는 매스컴에서는 극단적 보수집단의 인권 교육



방해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이 일이 있고 자녀들의 학교 교육 내용이 안전하지, 학교에서 필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침 당시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성교육을 받기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방문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이전 같으면 무심코 잘 다녀오라고 했겠지만,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나는 인터넷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 기관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립센터를 위탁받아 교육하고 있어서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이 내 생각과 차이가 있었다. 부모들이 말해주기 싫은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와 청소년기 성에 대하여 절제, 순결, 책임 있는 행동을 알려주는 성교육을 예상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상호간의 성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성적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다양하게 성적지향에 따라 나누어진 사회적 성을 자녀들에게 ‘다름’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섹슈얼리티 교육활동가’, ‘청소년 성인권 보장을 위한 상담가’ 등이 교육 및 상담을 하고, 북미와 유럽의 개방형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센터에서는 성적 체험 학습에서 최대한 은유적이고 절제된 표현으로 성관련 행동을 교육하지만 인형을 통한 실습, 피임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성감대를 찾아보는 실습을 하는 등 성장한 신체 대비 아직은 어린 자녀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진행된 법한 성교육 내용이 법 제정이 아직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성교육 시간에는 자녀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솔직한 자기 고민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나 담임선생님이 일체 수업 참관을 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아이에게 이 센터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우리의 고민을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아이가 결석 처리되더라도 그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당시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셨다. 결석처리 대신 센터 밖 복도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와 함께 있어주셨다.

자녀 세대가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과 믿음을 갖게 될까?

상당수 공동체 자녀들이 이미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받았고, 그 내용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교육의 목적은 동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에서 외부 성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여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피임기구를 직접 만져보며 구체적인 사용법을 체험하고, 성교육이 방송으로 진행된 남학교에서는 강사가 “남자는 죄인이고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해서 놀란 담임선생님이 교육 도중 방송을 꺼버렸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처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놀랍고 당황했는데 이미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답답해졌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 보건교사나 담임선생님, 교장, 교감선생님께 정중하게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걱정을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부모 입장에서 공감해 주셨다. 때로는 예정되어 있던 성교육 강사 초빙이나 센터 방문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교육 계획을 바꾸거나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찾아서 성교육을 하기도 했다. 타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성교육 문제를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수 년 전 일이다.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의 성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개방형 성교육과 사회적 성을 자녀들에게 ‘정상’으로 교육하는 방향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

다. 개방적 성교육의 피해는 서구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개방형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어린 자녀들이 성적 자기감정으로 충실하게 행동했을 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남겨줄 수 있고, 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의도적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몽상가들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출산을 막기 위해 태아살인(낙태)이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성교육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성희롱하는 등 교사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들을 훈육할 수 없는 교권 실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예견되지만 성교육이 급진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정치적 사상 및 신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의 수장이 되자마자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다. 좋은 법령처럼 들리지만 평등법(차별금지법)처럼 그 안에 ‘성적지향’ 등의 동성애 코드가 심겨져 있고, 개방적 성 윤리관을 포함하고 있다. 마침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 조항삭제에 대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 세대가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과 믿음을 갖게 될까?

교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을 정치적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교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금기시해왔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겪어온 학교생활은 대학진학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과정만이 아니다. 그곳은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고, 성장하고, 지식과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장소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공부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앙교육도 유예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인본주의와 무신론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경험과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 혹은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면 4월 19일과 26일 열리는 온누리세계관학교 세미나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에서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와 정치 도구화되어 가는 어린 자녀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교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
일시: 4월 19일, 26일 오후 8시 줌(Zoom)
신청: 02-3215-3637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방언 여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장님이 방언기도 하는 걸 보고 저도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딴생각에 빠집니다. 방언하면 기도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집중도 잘 된다고 해서 방언 받으려고 치유집회 같은 곳에 가서 안수기도도 몇 번 받아봤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상담 혹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크리스천이 방언을 사모하는 것을 발견했다. 집회에서 누군가가 방언에 대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방언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의 표지로 이해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심이 깊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다. 고린도전서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당시 고린도교회 역시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이해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언의 은사로 인해 고린도교회가 영적 분열과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방언을 포함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나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언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언의 은사 또한 마찬가지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나는 청년 시절 교회를 위한 특별기도회 기간에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다. 당시 내가 출석

하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전체가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때였다. 그때 나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회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다. 방언의 은사는 구한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다고 말한다(고전 12:4).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방언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다. 무엇이 우월한 것이고, 무엇이 열등한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안타깝게 우리 안에 은사의 다양성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방언과 같이 평범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은사가 중요하고 우월해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운데 방언이 아니지만 다른 것이 주어져 있을

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역사하실 일과 계획이 있다면 방언을 은사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방언 여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따라 이루어진다. 방언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은사와 방법으로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기도로 구하라.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고 고백하라(마 26:39, 막 14:36, 눅 22:42).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정한호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과거 첫사랑은 잊고, 현재 배우자와 처음 사랑 기억하기

남녀의 첫사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첫사랑, 혹은 과거의 연애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험 부족, 상대에 대한 과한 기대, 기대의 좌절, 상대방에 대한 실망,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함 등 다양하다. 이마고 부부관계치료(Imago Relationship Therapy)를 개발한 하빌 헨드릭스는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관점에서 결별을 경험한 한 커플을 예로 설명한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 그러다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그 여자에게 중요한 가치와 기대는 ‘안전’과 ‘안정’이다. 이사를 자주 하는 삶은 이 여성을 몹시 불안하게 만든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안전’과 ‘안정’에 대한 기대를 남성에게 전달한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안전’이라는 필요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인 듯 행동한다. 자신은 한곳에 오래 머무는 취향은 아니지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자신의 본 모습과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남자는 오래 정착했다고 여겨지는 곳에 싫증을 느끼고, 갑작스럽게 여자를 떠나버린다. 여자는 큰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고 버려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 이 남자는 본래부터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성향이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와의 사랑을 위해서 그 여자가 전달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랑과 결별을 하게 되었다.

주위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례를 간혹 만날 수 있다. 결혼 이후, 혹은 연애 초기 이후 상대가 변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고, 갈등과 오해를 겪으면서 가슴 아픈 이별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랑했던 이성과의 이별은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물론 대부분은 이별의 고통에서 시간이 지나면 훌훌 털고 일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다. 이별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별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충분히 애통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별의 사건을 담담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슬퍼하고 애통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별은 당연히 슬퍼해야 하는 사건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자신의 인생 페이지를 채우는 한 가지 힘든 사건이라고 회고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이별에서 심리적으로 잘 회복했다는 중요한 증거는 과거의 사건을 담담히 진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과거

의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쑥불쑥 과거의 기억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첫사랑 혹은 옛사랑과 이별을 겪고 심적으로 주저앉아 있기보다 그 아픔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 흘러가게 해야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종종 과거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도 못하는 사람을 보기도 한다. 몇 주, 몇 개월 속앓이를 겪는 수준을 뛰어넘어 몇십 년동안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사랑했었던 이성, 헤어졌던 이성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상실의 아픔은 때로 오랜 시간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도 한다. 최근 한 유명 가수가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20년 전 사랑했었던 여자와 재회해서 결혼했다고 대중에게 알렸다. 미련과 아쉬움과 그리움이 20년 이상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고, 상대방도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의 축하가 있었다. 그런데 만일 기혼자가 여전히 과거의 이성을 잊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전히 과거의 사랑과 경험했던 결별

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거나 자책과 후회가 있다면 현재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아련함 혹은 호기심에 과거 사귀었던 이성의 살아가는 모습을 일부러 찾아보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배우자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말 2:15). 과거 이성과의 사랑 경험은 과거에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하다. 흘러가도록 놓아줘야 한다. 현재 자신의 삶, 자신의 결혼에 끌여오지 말아야 한다.

과거 첫사랑, 옛사랑이었던 이성과의 이별 경험이 있었다면 그 아픔을 잊어버리자. 떠나 보내 버리자. 대신 현재 배우자와의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도록 노력하자.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부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계 2:1~7).

나눔: 부부의 첫 만남과 설렘던 데이트 경험을 나누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신앙 경험도 나누어보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긴급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십자가의 길〉
맹의순 저 | 홍성사 | 13,000원

2022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독교의 전통이다. 이 특별한 시간에 한국 기독교 역사 인물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불꽃처럼 살다간 청년 맹의순을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책 〈십자가의 길〉의 주인공 맹의순은 1926년 1월 1일 맹관호 장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선신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뜻

하지 않은 한국전쟁을 만났다. 대구로 피난 하던 중에 인민군으로 오해받고 미군에게 붙잡혀 하루아침에 부산 거제리 포로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로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그는 인민군과 중공군들이 모여 있는 천막에 광야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매일 전했다. 교회는 성장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남대문교회 중등부 교사였던 맹의순 선생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배명준 담임목사가 제자들과 함께 찾아와 그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맹의순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석방의 기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뇌막염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그리 길지 않은 26년 8개월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광야교회 성도들(인민군과 중공군)이 그가 죽기 전 외친 마지막 외마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였다고 증언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따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자주 고백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건강과 체력, 인간적 사랑에는 한계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포로수용소에서 영화롭게 사용하셨다. 놀라운 그의 삶은 1998년 정연희

권사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고, 창작 오페라(2009년)로도 만들어져 전쟁 속에 피어난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이 책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 어떻게 맹의순은 꽃다운 나이에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내면에 사무친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랑의 갈망 때문일 것이다. 그 증거가 이 책에 드러나 있다.

이 책은 1952년 1월 1일에서 1952년 3월 26일까지 맹의순의 친필일기다.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분이 기증하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한 장 한 장을 읽다 보면 그가 어떻게 광야교회를 설립하고 활동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새벽기도회와 설교 내용 요약, 포로들에게 이념을 초월한 사랑이 어땠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녹아있다. 비록 조각 글과 아주 작은 일상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포로수용소 생활, 아침 5시에 시작되는 새벽기도회 분위기, 오전의 천막 전도와 여자 수용소 예배와 찬양대 지도, 낮 예배 정경과 성경공부 분위기, 천막 전도, 청년면려회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어느 날은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며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감동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마지막에는 더 많이 밀려오는 중공군 포로들과 함

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오로지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식사를 거를 때가 많았다. 자신의 밥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대신 기뻐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더 주님을 닮지 못하고 더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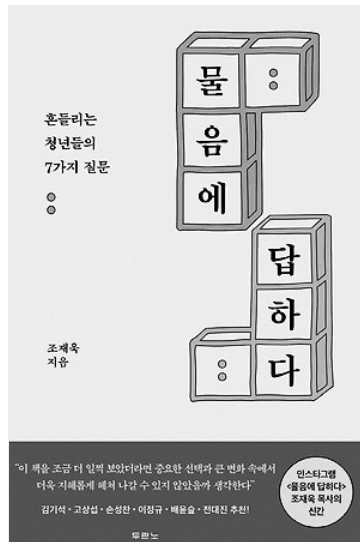
맹의순의 〈십자가의 길〉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살기 좋은 것만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믿음에 울려 퍼지는 기상나팔 소리 같다. 이 책은 신앙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의 아버지는 평양장대현교회의 장로였다. 1949년 1월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건너와 가족들과 남대문교회의 장로로 충성되게 섬긴 것으로 유명하다. 난세에 아들에게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신앙 전수 과정을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 안에서 세 번째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긴급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흔들리는 청년들을 위하여



〈물음에 답하다〉
조재욱 저 | 두란노 | 13,000원

청년들을 위한 담백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싶은 청년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부모와 청년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자아, 꿈, 자유, 사랑, 인간관계, 정의, 죽음.’

요즘 청년들이 관심 가지는 키워드다. 내가 누구인지, 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왜 자주 외로운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멀고도 가까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인스타그램 ‘물음에 답하다’ 계정을 운영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조재욱 목사가 청년들의 고민에 복음으로 답한다. 저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일방적으로 주기보다 청년들이 던지는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복음으로 가치를 뚫어 나간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이 책은 ‘내가 왜 나를 모르겠지?’, ‘넌 꿈이 뭐니?’, ‘아,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사랑, 나만 어려울까요?’, ‘혼자가 편한데 왜 외롭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음까지 고민해야 돼?’ 등 일곱 가지 주제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신앙까지 흔들리는

선교지 이해를 돕는 책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명, 이슬람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
정세진 저 | 민속원 | 16,000원

못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중동 아랍의 이슬람과 큰 차이가 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관습적이어서 중동 아랍과는 다른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알면 보인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지의 영혼들과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면 그들의 삶과 생각이 보인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다. 동서양이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 만큼 오랜 세월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자리 잡았다.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에서는 몽골, 러시아, 소련 등의 역사적 유산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명, 정체성을 쉽게 설명한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민족인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크 민족의 역사, 문명, 국가건설의 다양한 특성도 알려준다.

과거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지금 중앙아시아의 주요 민족의 특성만 살펴봐도 중앙아시아인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생활 이슬람(비공식 이슬람)과 원리주의 이슬람을 구분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과 중동의 이슬람이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전반적으로 생활 이슬람으로 대변되었고, 원리주의 이슬람이 핵심으로 등장하지

남양주온누리교회 기공 예배

2024년 새 예배당 건축 완료 예정

남양주온누리교회 기공 예배를 지난 4월 13일(수) 남양주 신축부지에서 드렸다. 기공 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건축위원회, 당회운영위원회, 온누리선교재단, 사역장로회, 장로중보기도모임, 캠퍼스협력위원회, 캠퍼스 담당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해영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 사회, 정영규 장로(캠퍼스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유형 장로(건축위원회 위원장) 진행보고, 임재용 대표(이촌공동체, (주)건축사사무소 OCA 대표) 설계보고, 오이식 장로(남양주온누리교회 대표장로) 감사인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축도, 첫 삽 뜨기 등의 순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킹덤 파이오니어’ (행 11:19-26)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에 축복과 인정을 받고, 킹덤 파이오니어의 역할



남양주온누리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에서 진행된 첫 삽 뜨기.

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유선진 권사(남양주온누리교회)는 “성전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도 재건되어서 성숙한 남양주온누리교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김진섭 집사(남양주온누리교회)는 “남양주온누리교회가 Acts 29 비전을 꿈꾸는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돌보는 교회, 이방인들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새 예배당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77번지에 지어진다. 2024년 3월 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지면적 1,238.10㎡, 연 면적 6,824.05㎡로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다. 지하 3~5층 주차장, 소예배실, 전기, 기계, 발전기실, 지하 1~2층 본당(1, 2층)과 소예배실, 지상 1층 로비, 북카페, 지상 2~4층 차세대 예배실, 회의실, 지상 5층 목회지원실, 소회의실, 옥상 정원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지난 14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사림과섬김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식.

사림과섬김,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

사마리안퍼스에 5억, KWMA에 2억 원 기부

사림과섬김(15개 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14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사림과섬김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사마리안퍼스에 5억원,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2억 원을 후원했다.

이재훈 목사는 “전쟁과 산발 등의 재난은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고통이 더욱 커진다”면서 “사마리안퍼스와 KWMA같은 국제적

인 기관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Christopher Weeks 대표(사마리안퍼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사림과섬김 회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고, 박래득 사무국장(KWMA)은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번 후원이 좋은 소식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창조신앙스쿨은 창세기 및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말씀에 기초한 창조론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인류의 기원 진화론 바로 알기’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4658-0987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보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해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5274-9350

아버지학교 이사장 이취임

김성묵 장로 이임, 최성완 장로 취임

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김성묵 장로가 이임하고, 최성완 장로(이수공동체)가 취임했다. 김성묵 장로는 두란노아버지학교 고문으로서 가정사역을 이어나간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이취임식은 4월 16일(토)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2022 전국 두란노아버지학교 지부장대회’ (이

하 2022 지부장대회)에서 열렸다.

2022 지부장대회는 지부장 위촉식, 이사장 이취임식, 전신갑주 기도회, 중보기도 지부결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묵 장로는 27년 동안 아버지학교 운동을 이끌어왔다. 최성완 장로는 두란노아버지학교 기획본부장, 한국본부장, 국제본부장, 이사 등을 역임했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 역량 강화

난민촌 접근성 강화, 봉사단원 파견, 협력관계 강화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난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우간다 지부 글루 지역 사무소를 팔로리나 남수단 난민촌과 더 가까운 모요 지역으로 이전했다. 우간다 지부 이전으로 난민촌과 이동 거리가 5시간 이상 단축됐다.

한편, UNHCR(유엔난민기구)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했다. 코이카(KOICA)와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도 강화한다. NGO 더멋진세상 김시용 PM과 김정환 봉사단원(KCO C 월드프렌즈)을 파견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온라인 P.P 기도회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4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

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0

4월 17일, 24일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평택, 인천, 강동

온누리교회가 장애인주일(4월 24일)을 앞두고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을 한다. 4월 17일(주일)과 24일(주일)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기증할 물품을 ‘굿월스토어 수거함’이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가져다주면 된다. 집에서 안 쓰는 물품이면 기증할 수 있다. 다만 대형가구,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 전집, 큰 플라스틱 장난감, 사용한 침구나 속옷, 고장 났거나 오염된 물건 등은 기증할 수 없다.

홍혜원 원장(굿월스토어)은 “온누리교회는 매년 굿월스토어와 꾸준히 함께 해주고,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물품을 기증한다”면서 “그 덕분에 발달장애인 275명을 고용해서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의:1670-9125

4월 19, 26일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상반기 온라인 세미나

온누리세계관학교(OWA) 상반기 세미나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가 4월 19일(화)과 26일(화)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

학원)가 성혁명, 동성애, 젠더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학교 내 성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없다. 참가신청은 전화(02-3215-3637)로 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27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

는 10만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0

■ 21년차 CGNTV 직원 간증



/ 김경숙 팀장(CGNTV)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나요?”

2000년 8월,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후배의 제안을 받았다. 무지했고 신앙도 없었던 나의 온누리 인터넷방송에서의 무모한 출발이 시작됐다. 큐티, 예배, 성경, 수시로 했던 직원성령집회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걸음마도 못 댄 아이를 뛰라고 하는 것도 아닐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전혀 모르던 나를 하용조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통해 선교의 자리에 초대하셨다. 선교가 정확히 뭔지도, 아웃리치를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가야 하는 줄 알았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때 본당에 자리가 없어서 꼭 찬 경찬을 통로 계단 끄트머리에 쭉그려 앉아 예배드리던 이용경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KT 사장도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은 CGNTV 업무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할 기회를 주셨다. CGNTV 대만지사 개국을 지원할 직원이 있었는데 상황이 변해서 며칠 만에 내가 대만에 가서 지사 개국을 준비했다. 대만 CGNTV 개국과 함께 1년 넘게 유학생 통역자 한 명과 내 생애 없을 거로 생각했던 외국 생활을 했다. 또 아나운서와 라디오만 해오던 나에게 귀한 출연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 덕분에 PD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밤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쁘게 일하던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동료들,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사님들, 두란노서원 직원들까지 정말 많은 분이 기억난다. 무엇보다 기도로 섬겨주신 권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과 믿어준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이 귀한 마음이 모여 나라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오게 했고,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다. 그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사람들이 CGNTV는 어떤 곳이나고 물으면 “CGNTV는 연약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고 대답한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나요?”라고 물어 물어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열심을 다하는 CGNTV의 귀한 지체들이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한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남혜 전도사(중국어예배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나는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부를 섬기고 있다. 2019년 온누리전도학교를 알게 되었다. 10주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조모임도 은혜로웠다. 무엇보다 전도 방법을 배우고 조원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용산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내게는 큰 도전과 큰 축복이었다. 그날 이후 중국어예배부에서는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새신자들을 전도하고 있다.

중국어예배부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새가족반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온누리전도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국어예배 새가족반 선생님들과 순장님들이 전도를 배우고 싶어했는데 대부분 학생이라 방학 때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정규 과정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온누리전도학교에서 5주 과정을 만들어 주셨다. 모든 자료를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열정을 다해 강의해주시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셨다. 무엇보다 조장님들의 섬김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특히 ‘1:1:1(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전도’

를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회개하게 되었다.

온누리전도학교 수강 과정 중에 조장님들과 함께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했더니 사방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사탄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씨앗을 뿌렸다. 전도하려는 용기가 사라지고 기쁨도 없어졌다. 그러나 조장님들의 열정적인 중보기도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마련해주신 과정은 중국어예배부에 정말 특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전도보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늘의 천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살고 싶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홍경옥 성도(양재공동체)

내 자녀를 위한 1순위 교육

창조과학에 대해 잘 알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습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좋은 기회가 생겨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진화론이 진리’라고 배우는 세상에서 사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이 세계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심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세상에서 진화론이 절대적 진리라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절대 진리인 창조론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조신앙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한다. 창조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내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할 1순위

교육이다.

창조신앙스쿨 교재가 참 잘 되어 있다. 그중에서 “돌연변이로 내성이나 저항성이 생겨나는 것은 진화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그 질문의 답을 들으면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더 나은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것이 어떤 요인으로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잡하고 정교한 유전자 구조를 가진 인간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다. 유전자 정보는 증가하거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대로 만들어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 창조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지층, 화석 등의 사진을 보면서 꼭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조신앙스쿨 교재에 나온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과 하나씩 공부해야겠다. 창조에 관한 방대한 내용이 쉽게 정리되는 질문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면 아이들과 답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간증



/ 유영준 집사(서빙고 새가족팀)

북적대는 잔칫집을 그려본다!

참 미안하고 감사했다. 새가족들이 앉아야 할 잔치 자리에 우리가 앉은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축하받을 새가족이 혹시 우리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했다. 지난 3월 27일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이하 만남의 잔치)가 온라인(Zoom)으로 열렸다. 그동안 만남의 잔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고, ‘새가족 환영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해왔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3년 만에 열리는 만남의 잔치였다.

이번 만남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스태프들이 기도와 걱정을 많이 했다. 우리는 새가족들이 만남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도록 중보기도했다. 혹시나 스태프 중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만남의 잔치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했다. 불명확하고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과정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린다.

오종연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오 집사님은 만남의 잔치 2주 전에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남의 잔치에 함께 했다. 박용권 집사님께도 감사하다. 매주 토요일 무거운 방송장비를 들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다. 매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신 김윤전 집사님께도 감사하다. 줄지에 ‘쥔 호스트’를 맡았지만 노련한 실력으로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소통해주신 최희진 집사님께도 감사하다. 방송의 꽃인 자막과 영상송출을 맡은 최성희 집사님, 집이 교회와 가까워 굿은일을 도맡아 하신 강창욱 총무님, 스튜디오를 빛나게 장식해주신 심은하 집사님, 새가족들과 몇 주 전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선물과 화관을 보내고 만남의 잔치 참석을 독려한 김정신, 이미숙 집사님, 공동체 담당 사역자님들의 헌신도 잊을 수 없다. 여러 스태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만남의 잔치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다.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는 북적대는 잔칫집을 그려본다.

장로칼럼

CGNTV를 위한 기도

정상건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CGNTV 개국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감격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6년 전 우리는 인터넷 방송으로 미약하

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80여 개국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순수복음방송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5개 지역에 CGNTV 지사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방송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두려움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와 선교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타락한 문화와 우상숭배, 이기적 사상, 지도자들의 비성경적 행태로 말세와 같은 상황에 부딪혀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나 선교지에서 대면 예배와 양육이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해서 선교지와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세대들은 정신적 혼란과 좌절감에 빠져 믿음 없는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미리 순수복음방송 CGNTV를 예비하시고 세위 주셔서 급히 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선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필수 선교 도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예배와 양육이 중요해졌고, 한 영혼을 위해 CGNTV가 쏟아온 기도와 노력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 기독 OTT ‘퐁당’을 출시하게 함으로써 CGNTV가 더 넓고, 더 깊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8만여 명의 가입자와 240여 개의 협력교회가 기독 OTT ‘퐁당’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 OTT ‘퐁당’이 다음세대들이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허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달려라퐁당’ 후원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주일학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는 이번 챌린지로 한국 교회 다음세대와 교회학교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퐁당’ 후원 챌린지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독 OTT ‘퐁당’이 온누리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곳에 전파되어서 복음의 백과사전이 되게 하옵소서.

CGNTV 200여 명이 직원들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주셔서 중차대한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믿음, 지혜를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GNTV 임직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온 마음과 뜻을 받쳐 실천하는 CGNTV 임직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칼럼

아담과 하와

정인숙 권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우리를 덮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다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더없이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이리도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지, 왜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는

지 지난 시간을 돌아해보았다.

“아, 내게 아담이 생겼기 때문이구나!”

내게 남편은 영원히 남의 편이요, 평생 원수였다. 그저 한 집에 동거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년 전 남편이 교회에 발을 들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매주 교회에 함께 가고, 매일 아침 <생명의 삶>으로 큐티 나눔을 한다. 밤마다 나누는 신앙의 대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남편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노라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내게 너무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코로나19로 자녀들과 만남도,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담과 에덴동산에서 함께 먹고 거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덕분에 세상에는 외로움이 가득하지만, 나는 전보다 외롭지 않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다.

남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늘 손을 잡고 데려다준다. 예배의 자리,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리, 연로한 장모님을 모시는 자리 그 어디라도 가까이 따라나선다. 남편은 나의 진정

한 동역자로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사탄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물을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살았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른다.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

사탄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조정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구절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임을 우리 가족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사탄을 이기고 났더니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변했더니 남편과 함께 하는 이 땅이 내게 에덴동산이라 여겨졌다. 길을 걸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산이나 들이나 냇물이나 하늘을 볼 때도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가정을 보든 남편은 아담이요, 아내는 하와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과연 에덴동산을 누리고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부부가 두 손을 잡고 에덴동산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듣는다.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나의 지난 시간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모든 가정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에덴동산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오늘도 우리 부부는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결혼행진곡에 발맞추어 함께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손을 잡고 에덴동산에서 살리라!

신앙에세이

조경근 선교사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지에 있을 때였다. 대학부 연합 아웃리치팀과 함께 한 적이 있다. 청년들이 아웃리치 일정을 마무리하며 토크쇼를 준비했다면서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패널토론 형식처럼 사회자의 질문

에 선교사들이 답변하는 방식의 코너였다.

“선교사님, ‘선교란 나에게 00이다’라고 한 마디로 표현해 주실래요?”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저에게 있어 선교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2001년 네팔에서 단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4~5명의 다른 단기선교사들과 함께 네팔 극서부 지역에서 동역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

녁이었다. 조용히 식탁에 앉아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지체들이 한 순간에 급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 자리에 있던 지체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통곡하는 동료, 자지러지게 웃는(내적자유 중 일어나는 현상) 친구,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나는 “네팔의 서부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느꼈다. 기도를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내 입에서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언이 순차적으로 나왔다. 그날 성령님의 놀랍고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힌 나는 네팔 서부지역을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했다.

그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소명이라고 확신했다. 네팔을 위해서 평생 중보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겼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명 말이다.

소명이 이끄는 삶

그날 이후 주님께서는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나를 네팔 선교사로 준비시키셨다. 단기선교사로 있던 중에 네팔인 자매를 만났고, 우리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 국경을 넘나들며 국제연애를 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문화가정을 이뤘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온누리M미션의 요청으로 네팔어예배(서빙고)를 섬기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으로 이주민사역을 섬기던 우리 가정은 두란노해외선교회를 통해 부르심의 땅 네팔 선교사로 파송 받아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2001년 네팔에서 겪었던 소명 사건이 있었다. 그 부르심이 나를 인도했고, 그 약속이 내 삶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었다.

지금 나는 선교사 430여 명과 함께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있다. 청년 시절 선교적 소명을 받은 이후 주님께서 나를 네팔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

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 네팔선교라면 나름대로 자신 있었는데, 선교 단체 중간 리더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과 같았다.

주님은 나에게 이주민사역과 선교 현장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교회와 센터를 개척하며 청년 단기선교사들을 지도하는 기회를 주셨다. 2000선교본부에서 온누리교회를 배울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셨다. 이제 그 사역과 경험을 바탕으로 두란노해외선교회 총무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딛고 있다.

나 자신을 보면 한없는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신실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간다. 소명이 이끄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인내하며 기도하라

짧은 고난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인내 자체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이 계속 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읊을 위로하려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전혀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읊의 문제를 분석하려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권했지만 읊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읊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원통함,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읊기가 길어졌습니다. 읊이 친구들의 많은 말에 대응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한탄도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읊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원인을 알고자 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읊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격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읊은 인내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시험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쓴 뿌리, 아픔, 원통함,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인내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도로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라고 받아주십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조차 잘 믿는 척하는 것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읊의 인내가 소중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시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읊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모습 ‘기도’

읍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13절).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입니다.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에 무릎에 못이 박힌 것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다고 해서 생긴 별명입니다. 참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야고보 사도가 가장 강조했던 행함이 기도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드러진 기도입니다.

14절 이하에서 세 가지 상황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14~16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당시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의사라는 직업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술적이고 우상 숭배 같은 제의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때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기름이 치료할 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기름을 살 돈이 없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통해 지원해 주고, 기름을 발라 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마음을 모아 지원해 주고, 기도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 없이 걸리는 질병도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 근심, 마음의 분노, 용서하지 못한 쓴 뿌리들이 건강을 해치는 질병으로 변질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지나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했는데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짊어지고 있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생기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나눔으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해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고치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17~18절).

기근은 경제적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고 섬겼습니다. 제사장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3년 간 기근을 통해서 진정으로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엘리아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과 축복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셋째, 유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형제가 있을 때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19~20절).

진리에서 떠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기근이라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타락한 자유 의지가 있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 가운데 진리에서 떠난 영혼을 돌리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인내 가운데 기도를 강조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기에 능부처럼, 읊처럼 인내합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기근, 진리에서 떠난 이들을 돌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방찬중 장로
(하나공동체)

이자 예배공동체다.

내가 하나공동체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북한민과 남한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호기심 반, 기대감 반으로 참석했다. 온라인(Zoom) 예배였지만 하나공동체 예배를 드릴수록 나의 오감이 감동과 흥분

하나공동체(양재온누리교회)는 남북 지체들이 하나 되어 복음적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 이후 북한을 최우선 선교지로 품고,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 준비된 팀이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족공동체

에 휩싸였다. 요동치는 가슴을 억누르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치 꿈에 그리던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해서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가족이 입장할 때마다 터지는 환호성과 반가움을 나눴다. 그 모습이 마치 625 한국전쟁 이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다 다시 만난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너무 아름답고 훈훈했다.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일찍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아, 주님. 부족하고 메마르고 사랑이 부족한 저를 하나공동체에 소속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체험시키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다. 하나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 지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공동체는 영유아에서부터 노년층, 북한

하나공동체로 오세요!

민부터 통일원 감사, 북한 전문가까지 다양한 세대와 출신을 초월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예배공동체다. 남북지체 거의 절반이 공동체 운영위원, 찬양팀, 리더십 등을 구성하고 있다. 치우침이 없는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주변에 북한민이 있다면 하나공동체를 소개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합쳐서 복음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 이 과업을 달성하는데 선봉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북한민들이다. 남한 성도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협력해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받들어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공동체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역자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로 하나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변함없다. 그 고귀함에 고개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지금도 남한의 수많은 성도가 피 흘림 없는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안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수고해야 할 이들은 북한 출신 지체들이다. 더 많은 성도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로 오면 하나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10-9066-1149

결혼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임호열, 김종순(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임정훈(온누리교회)
Andy Hwang, Sofia Tan의 딸 karen Hwang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김한성, 장은숙(온누리교회)의 아들
김형준(온누리교회)
임효선, 박정미(온누리교회)의 딸
임진영(온누리교회)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50세이상)의 재능 나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점심 배식 지원,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등 방역용품 후원
문의: 신경자 행정담당(02-6951-0329)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인생 네트' 영상제작 스토리 공모
내용: 55세 이상 서초구민 중 기록하고 싶은 삶의 특별한 순간이 적힌 사연을 사진 4장과 함께 신청
문의: 김유경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구가족센터 '오롯이가족' 회원 모집
대상: 서초구 및 인근지역 한부모(이혼, 비혼, 사별 등) 및 미성년 부모 가족
내용: 회원가입 후, 부모자녀관계 향상 문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진행(개설시 별도 신청)
기간: 모집 연중 상시
문의: 교육문화팀(070-7477-2612)

재 정

실업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술성적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광고

■ 소천
4/8(금) 분당B 이은정 성도 부친상 고 이상묵
4/8(금) 이촌 최정숙 권사 부군상 고 이재성
4/9(토) 양천 조혁래 집사 부친상 고 조점
4/9(토) 가정사역 박일면 장로 모친상 고 강용욱
4/10(주일) 경기A 박현옥 성도 부군상 고 조영수
4/11(월) 서빙고 김진삼 성도 모친상 고 이요래
4/12(화) 성북 김훈 집사 부친상 고 김현재
4/13(수) 서초B 허신숙 안수집사 부친상 고 허찬
4/14(목) 성북 한정훈 성도 부친상 고 한기두
4/14(목) 한강 이규선 권사 모친상 고 허은숙

■ 광고
37기 드림어게인 스쿨
일시: 5/21~6/18 매주 토요일 16:00~19:00 (5주)
장소: Zoom(실시간) & 온라인
신청: 이혼한 남편,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남편, 재혼을 준비 중인 남편
회비: 4만 원
문의: 김재영 팀장 010-2539-5665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RUN fondant

달려라풍당
후원챌린지기간 /
5. 7 ~ 6. 6 (31일간)참가자격 /
누구나 (선착순 5천명, 참가비무료)접수 /
4. 18 (월) ~ 5. 22 (주일)종목 /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기록측정 가능 종목후원방식 /
챌린지 기간 내 개인별 누적된
거리만큼 후원문의 /
02-796-2243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CGNTV 홈페이지 참고2022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
운영을 위한 200개 교회
장비지원 및 '풍당'의
다음세대 콘텐츠 제작에
사용됩니다.

챌린지 안내 바로가기



챌린지 어플 체리앱

주최: CGNTV
주관: CGNTV 운영위원회
협력: 온누리교회, 이무송(홍보대사)